

# 광양시, 故이균영 작가 문학비·문학동산 조성

### 최연소 이상문학상·단체학술상 수상 천재작가 광양읍 우산리 출신...교통사고로 45세에 타계

‘하늘이 시샘한 작가, 이균영’을 기리는 문학 공간이 광양시 광양읍에 조성됐다.

광양시는 12일 “최근 광양읍 우산공원에 있는 이균영 문학동산에서 ‘이균영 문학비 제막·문학동산 조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가 근처에 조성된 ‘이균영 문학비·문학동산’은 2018년 문인이 중심이 돼 뜻 있는 지역 각계에서 ‘이균영문학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20년 11

월 준공됐으나 코로나19로 제막식이 취소됨에 따라 2년 만에 이뤄졌다.

제막식에는 이균영 작가의 어머니, 아들, 동생, 누나 등 유족과 후원자인 황재우 대표를 비롯한 이균영문학비 건립추진위원, 소설가 조정래, 박해강, 시인 정호승, 광양예총, 문화원 등 관련 단체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균영 작가 문학비 건립 후원이 마중물이 돼 문학비와 문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 우산공원에 있는 이균영 문학동산에서 이균영 문학비 제막·문학동산 조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학동산을 조성하며, 광양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 준 황재우 광양기업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순탄 출신으로 고인을 사랑했던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와 하동 출신

으로 정재봉, 이균영과 인연이 있었던 정호승 시인이 기념식에 특별 참석해 이균영과의 특별한 만남을 소개하며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박해강 소설가는 제막식에 앞서 이균영 작가의 못다 핀 꽃을 애석하게 여기며 직접 작성한 문학비 후원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광양문인협회 정은주씨는 광양의 자랑이었던 이균영 작가의 위대한 문학작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헌시를 낭독해 일찍 타계한 고인을 향한 그리움을 녹여냈다.

이균영 작가의 동생 이인영씨는 가족을 대표해 문학계와 학사학계에 남긴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준 광양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인화 시장은 “고 이균영 작가가 남긴 문학과 역사 정신을 추모하고 기리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념식을 계기로 광양시는 고인의 고귀한 뜻과 정신을 지역 문화유산으로 계승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51년 광양읍 우산리에서 출생한 이균영 작가는 소설가이자 역사학자로서 다양한 집필활동을 펼치며 천재 작가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45세에 타계하며 안타까움을 남겼다.

이균영은 1977년 단편소설 ‘바람과 도시’로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을 통해 등단한 후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제8회 이상문학상을 최연소로 수상했고 1994년에는 ‘신간회 연구’로 단재상 학술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 문학계와 사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광양=양흥렬기자



EU대사단, 백양사 사찰음식 체험...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대사를 비롯한 19개 회원국 대사·대사관 관계자 28명이 최근 장성 백양사 천진암을 방문해 정공스님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장성군 제공>

## 보성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법무부 선정...외국인 거주·취업 등 조건 특례비자 발급

보성군은 12일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인구 증대,

인력난 해결,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 요건은 지역 우수 인재(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TOPIK 3급)을 갖춘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보성군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이다.

2년 이상 보성군에 실거주하고 있거나 도시에 거주하다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과 함께 보성군으로 이주한 사람도 대상이다.

보성군은 앞으로 지역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공단지·제조업, 노인 돌봄 직종 등 해당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동반 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이 보성군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 촉진으로 지역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언기자

## 여수시,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여수시는 12일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공공 근로 사업 330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40명 등 총 370명이다.

신청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액 4억원 이하 가구 구성원이 우선 선발된다. 단, 사업 유형에 따라 연령 제한이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상반기 사업 기간은 2023년 2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며, 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 정비 사업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 근로자는 주 25시간, 65세 이상 근로자는 주 15시간, 정보화사업 근로자는 주 40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은 9천620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신

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가구 소득, 재산액,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하고 내년 2월 1일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과(061-659-3622)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진선기자

##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집중

### 화순군, 내년 2월까지...빅데이터·인적 네트워크 활용

화순군이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화순군은 12일 “겨울철 한파 등으로 건강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현황, 건강보험·전기요금 체납 여부 등 39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복지이장과 복지부녀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중심 발굴도 추진한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 난방비 지원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이웃돕기 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아보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최근 하나은행화순포츠센터 적벽실로비에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운영 홍보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관심을 갖고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이병철기자

## 담양군, 추월산 용마루길 전면 통제

### 내년 3월까지 노후 데크길 0.8km 구간 전면 교체

담양군의 관광 명소인 추월산 용마루길이 시설물 보수 공사로 내년 3월까지 전면 통제된다.

이번 보수공사는 추월산의 용마루길이 개설된 지 10년이 지나 노후되고 탐방로 곳곳이 파손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탐방로 데크길 3.9km 중 위험도가 높은 0.8km 구간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군 관광과는 지난해 새롭게 개설된 용마루 3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용마루 3길은 추월산 입구에서 도리리 방향 6.1km 구간이며 담양호의 경관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자(무심정)를 비롯해 곳곳에 쉼터가 마련돼 있다.

이병호 군수는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담양호 수변길을 최고의 웰빙 산책로이자 담양의 또 다른 랜드마크 만들기 위해 용마루길을 잇는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010-6670-9800

### 경매교육 [ 기초반 ]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 서구 매월동 (지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 북구운암동 (아파트)벽산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